

D1 · MIGRANT / DIASPORA FRIENDS

이주민 · 디아스포라 친구들

FRIENDSHIP TRACK · WEEK 5-10

Friendship As Mission School

우정으로 살아내는 선교 · 우정이 선교가 되는 일상

IMCA COMMUNICATIONS

WEEK 5 • MEET

만나다 · ‘이주민’을 만나기 전에 한 사람의 이름과 이야기를 만나다

KEY QUESTION

나는 My One Person 을 ‘한국에 온 외국인’, ‘도움이 필요한 이주민’, 혹은 ‘선교 대상’으로 먼저 보고 있는가? 아니면 고향과 가족, 언어와 문화, 꿈과 상실, 믿음과 이야기를 가진 한 사람으로 만나고 있는가?

D1 BEGINS WITH A PERSON

FAMS D1 은 프로그램이나 ‘이주민 사역’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배우고, 다시 만났을 때 먼저 인사하며, 어디에서 왔는지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MIGRANT / DIASPORA IS NOT THE WHOLE IDENTITY

유학생, 노동자, 전문직, 사업가, 결혼이주민, 난민·인도적 체류자, 귀화자, 다문화 가정 구성원 등 삶의 모습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주민’이라는 말로 친구 전체를 설명하지 마십시오.

LEARN THEIR NAME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면 자연스러운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싶은지 물으십시오. 이름에는 가족과 언어와 역사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MORE THAN ONE HOME

디아스포라 친구는 한국과 고향 모두를 집이라고 느끼거나 어느 곳에서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를 ‘진짜 고향’으로 선택하게 하지 마십시오.

ASK ABOUT HOME WITH CURIOSITY

‘고향에서 가장 그리운 것은?’, ‘꼭 소개하고 싶은 음식은?’, ‘어릴 때 좋아했던 명절은?’처럼 친구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질문을 사용하십시오.

FAMS · FRIENDSHIP AS MISSION SCHOOL | IMCA COMMUNICATIONS

DON'T TURN CURIOSITY INTO INTERROGATION

국적, 비자, 결혼, 월급, 귀국 계획을 연속해서 묻지 마십시오. 질문과 함께 우리 이야기도 나누어 상호적인 관계를 만드십시오.

DON'T ASSUME THEIR STORY IS SAD OR EASY

모든 이주민을 취약한 사람으로 가정하지도, 겉으로 잘 적응했다고 어려움이 없다고 가정하지도 마십시오. 실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FAMILY MAY BE ACROSS BORDERS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의 관계망은 지역적이면서 동시에 초국가적일 수 있습니다.

LANGUAGE IS PART OF THEIR WORLD

어떤 언어가 가장 편한지 물으십시오. 영어가 항상 공통언어라고 가정하지 말고, 쉬운 한국어·영어·번역도구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ULTURE GIVES CLUES, THE PERSON GIVES THE ANSWER

눈맞춤, 침묵, 거절, 시간 개념, 선물, 남녀관계 등이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문화책의 정보를 친구에게 그대로 덮어씌우지 마십시오.

LET THEM HOST YOU

친구가 좋아하는 식당, 집, 문화 공간에 초대받는 것도 선교적 우정입니다. 우리는 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도 됩니다.

DON'T ASSUME THEIR RELIGION OR LACK OF FAITH

친구가 무슬림, 힌두교인, 불교인, 시크교인, 기독교인, 무종교일 수 있습니다. D1은 종교 분류보다 사람을 먼저 만납니다.

THEY MAY ALREADY FOLLOW JESUS

이주민을 자동으로 비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신실한 그리스도인, 교회 리더, 목회자였을 수 있습니다.

DON'T BEGIN WITH HELP

‘무엇이 필요하세요?’만 묻기보다 ‘같이 커피 마실래요?’, ‘주말에 뭐 하는 걸 좋아해요?’라고 물으며 평범한 친구가 되십시오.

HELP WITHOUT SUPERIORITY

실제 필요가 있다면 돕되, 법률·비자·의료 등 전문영역은 추측하지 말고 정확한 기관과 정보를 함께 찾으십시오.

PAY ATTENTION TO POWER

언어, 시민권, 정보, 경제력, 교회 자원에서 우리에게 더 많은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힘을 복음을 듣게 하는 조건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THEIR PEOPLE

친구에게 이미 가족, 직장동료, 같은 언어 공동체, 신앙 공동체, 온라인 관계망이 있습니다. 그들을 전도 대상 명단이 아니라 친구가 이미 사랑하는 사람들로 보십시오.

FIELD PRACTICE · ONE PERSON · ONE MEAL · ONE STORY

이번 주에는 커피, 식사, 산책, 장보기, 취미 중 하나를 함께하십시오. 가능하면 친구가 장소를 정하게 하고 ‘고향에서 가장 그리운 게 뭐예요?’ 같은 질문 하나만 선택해 충분히 들으십시오.

SMALL GROUP · 함께 돌아보기

1. 이번 주 My One Person 에 대해 새롭게 이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2.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가정이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3. 상호적인 우정과 친구의 자유를 위해 다음에 바꿀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4. 친구가 가진 은사와 관계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흔적은 무엇입니까?

WEEK 5 PRAYER

주님, 제가 국적보다 이름을 먼저 기억하고, 필요보다 강점을 먼저 발견하며, ‘외국인’이라는 범주보다 한 사람의 가족과 꿈을 보게 하십시오. 도움을 신앙적 반응과 거래하지 않고, 친구에게 배우고 환대를 받으며, 그 관계망을 선교 전략으로 소비하지 않는 진실한 친구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LEARN THE NAME. HEAR THE STORY. RECEIVE THEIR
HOSPITALITY. BECOME A FRIEND.**

WEEK 6 • UNDERSTAND

이해하다 • 이주의 삶과 디아스포라의 세계를 한 사람의 실제 경험을 통해 이해하다

KEY QUESTION

My One Person은 왜 이동했고, 지금 어디에 속한다고 느끼며, 가족·언어·일·법적 지위·종교·문화·정체성이 그 사람의 일상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FROM COUNTRY TO CONTEXT

출신 국가를 아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같은 나라 출신이라도 유학생, 노동자, 전문직, 결혼이주민, 난민 등 삶의 맥락은 다릅니다. ‘그 나라 사람’보다 My One Person의 실제 삶을 이해하십시오.

MIGRATION HAS MANY LAYERS

이주는 언어·사회적 지위·가족·일·공동체·정체성·신앙·미래 계획을 동시에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WHY DID THEY MOVE?

교육, 취업, 가족, 경제적 책임, 안전, 모험, 신앙적 부르심 등 이주의 이유는 다양하며 여러 이유가 겹칠 수 있습니다.

VOLUNTARY OR CONSTRAINED?

얼마나 자유로운 선택이었는지 이해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기회를 따라 이동했고 어떤 사람은 경제·안전 때문에 선택지가 제한되었을 수 있습니다.

TEMPORARY OR PERMANENT?

처음 계획과 현재 계획이 같은지 물어보십시오. 한국은 잠시 머무는 곳, 장기 거주지, 새로운 고향, 다음 이동의 중간 지점일 수 있습니다.

LEGAL STATUS SHAPES DAILY LIFE

체류 지위는 취업, 주거, 의료, 교육, 가족 초청, 여행과 미래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이므로 함부로 캐묻지 말고, 법률 조언은 전문가에게 연결하십시오.

WORK • DIGNITY • REMITTANCE

일은 생계뿐 아니라 가족 부양과 존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고향으로 보내는 송금 뒤에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실제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LANGUAGE FATIGUE

두 번째·세 번째 언어로 하루 종일 사는 것은 피곤합니다. 느린 말, 침묵, 단순한 표현을 지적 능력이나 관심 부족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IDENTITY MAY SHIFT

한국에서는 외국인으로, 고향에서는 ‘너무 변한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정체성은 either/or 가 아니라 both/and 일 수 있습니다.

INTEGRATION IS NOT ERASURE

건강한 적응은 모국어·음식·이름·문화를 지우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FAMILY ACROSS GENERATIONS

부모와 자녀가 다른 속도로 문화에 적응할 수 있고, 자녀가 통역자 역할을 떠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의료·법률 문제는 전문적 통역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RELIGION MAY TRAVEL WITH THEM

종교 공동체는 예배뿐 아니라 음식, 언어, 취업 정보, 자녀 돌봄, 사회적 관계망의 중심일 수 있습니다.

D1 MAY OVERLAP WITH OTHER MODULES

친구의 종교 배경에 따라 A1–A4, B1 등의 자료가 도움될 수 있지만 D1의 핵심은 이주와 디아스포라가 신앙·관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DISCRIMINATION & EXCLUSION

한영받았던 경험과 배제된 경험을 모두 들으십시오. 차별 이야기에 ‘한국 사람 다 그렇지 않다’고 방어하기보다 친구의 경험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POWER MAP

한국어, 시민권, 정보, 교회 자원 등 우리가 가진 접근성이 친구를 자유롭게 하는 데 사용되는지, 의존시키는 데 사용되는지 점검하십시오.

TRANSNATIONAL RELATIONSHIPS

중요한 가족과 신앙 관계가 국경을 넘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선교 전략으로 먼저 해석하기보다 실제 삶으로 존중하십시오.

FIELD PRACTICE • ONE LIFE MAP • ONE DEEPER QUESTION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계획과 지금 계획은 달라졌어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집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와 같은 질문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SMALL GROUP • 함께 돌아보기

1. 이번 주 My One Person 에 대해 새롭게 이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2.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가정이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3. 상호적인 우정과 친구의 자유를 위해 다음에 바꿀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4. 친구가 가진 은사와 관계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흔적은 무엇입니까?

WEEK 6 PRAYER

주님, ‘이주민’이라는 한 단어로 친구의 복잡한 삶을 단순화하지 않게 하십시오. 가족과 일, 언어와 신앙, 고향과 현재 도시, 압박과 희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게 하시고, 제가 가진 힘을 친구의 존엄과 자유를 세우는 데 사용하게 하십시오. 아멘.

**UNDERSTAND THE JOURNEY. HONOR THE IDENTITY. NOTICE
THE POWER. SEE THE WHOLE LIFE.**

WEEK 7 • LISTEN

깊이 듣다 • 이주의 정보보다 떠나온 삶과 남겨둔 관계, 지금의 외로움과 미래의 희망을 듣다

KEY QUESTION

나는 My One Person 의 이주 배경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가, 아니면 떠나온 사람들과 장소, 지금 감당하는 압박과 외로움,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까지 깊이 듣고 있는가?

FROM INFORMATION TO STORY

‘몇 년에 한국에 왔다’는 사실 뒤에는 누구에게 작별했는지, 어떤 기대를 했는지, 언제 외로웠는지, 무엇 때문에 버텼는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STORY → LOSS → PRESSURE → HOPE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엇을 떠나거나 잃었는가, 지금 무엇을 감당하는가, 무엇을 바라는가의 네 층으로 들으십시오.

LISTEN TO THE DEPARTURE

‘한국에 오던 날 기억나요?’, ‘고향을 떠날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라고 물으며 출발의 감정을 들으십시오.

WHO THEY LEFT BEHIND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구, 교회 공동체 등 가장 그리운 사람의 이름과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HOMESICKNESS & LONELINESS

그리움은 음식뿐 아니라 자기 언어, 익숙함,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에 대한 갈망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미리 가정하지 말고 실제 경험을 들으십시오.

FAMILY AT A DISTANCE

부모의 병, 자녀의 생일, 장례식 등 멀리 있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PRESSURE TO SUCCEED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 ‘가족이 나에게 기대한다’는 성공 압박을 들으십시오.

WORK & LOST STATUS

현재 직장의 좋은 점과 힘든 점, 고향에서의 직업·사회적 지위와 현재의 차이가 자존감과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들으십시오.

DISCRIMINATION WITHOUT DEFENDING

외모, 피부색, 이름, 언어, 국적 때문에 겪은 배제 이야기를 방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LANGUAGE SHAME & PATIENCE

말을 잘못해 웃음거리가 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장을 대신 끝내지 말고 기다려주는 것도 환대입니다.

CULTURE SHOCK & JOY

한국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뿐 아니라 좋아하게 된 것, 감사한 경험도 충분히 들으십시오.

WHERE DO I BELONG?

‘어디에 있을 때 가장 내 사람들과 있다고 느껴요?’라는 질문으로 복합적인 소속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CHILDREN & GENERATIONAL TENSION

자녀의 언어·문화·정체성, 학교생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화 차이를 들으십시오.

FAITH BEFORE AND AFTER MIGRATION

한국에 온 뒤 신앙이 깊어졌는지, 멀어졌는지, 처음으로 다른 종교를 가까이 접했는지 변화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PRAYER NEEDS

친구가 원한다면 ‘제가 기도할 일이 있을까요?’라고 묻고 실제로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FUTURE FEAR & HOPE

비자, 부모의 건강, 자녀의 미래, 귀환·정착에 대한 두려움과 5년 뒤 바라는 삶을 함께 들으십시오.

GIFTS & CALLING

친구에게 필요한 것만 묻지 말고 잘하는 것, 언젠가 꼭 해보고 싶은 일을 물어 은사와 가능성을 발견하십시오.

FIELD PRACTICE • ONE STORY • ONE PERSON TO REMEMBER

‘고향에서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예요?’ 또는 ‘한국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가장 좋았던 순간 하나씩 이야기해줄래요?’처럼 한 이야기를 깊이 들으십시오.

SMALL GROUP • 함께 돌아보기

1. 이번 주 My One Person 에 대해 새롭게 이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2.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가정이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3. 상호적인 우정과 친구의 자유를 위해 다음에 바꿀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4. 친구가 가진 은사와 관계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흔적은 무엇입니까?

WEEK 7 PRAYER

주님, 어디에서 왔지만 묻지 않고 누구를 그리워하고 무엇을 짊어지고 어떤 미래를 바라는지 듣게 하십시오. 차별과 언어의 피로를 방어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듣고, 고통뿐 아니라 기쁨과 은사와 소망도 발견하게 하십시오. 해결사가 아니라 이야기를 기억해주는 친구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HEAR WHAT THEY LEFT. FEEL WHAT THEY CARRY. HONOR
WHERE THEY BELONG. LISTEN FOR THEIR HOPE.**

WEEK 8 • WELCOME

환대하다 ·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받는 사람’을 넘어 서로의 삶과 식탁에 들어가다

KEY QUESTION

나는 My One Person 을 교회와 한국 사회 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으로만 서 있는가, 아니면 친구의 언어·음식·가족·문화·공동체 안에도 겸손한 손님으로 들어가며 상호적인 우정을 살아가고 있는가?

FROM HELP TO HOSPITALITY

병원, 한국어, 생활정보를 돕는 것에서 더 나아가 FRIEND ↔ FRIEND 의 관계로 이동하십시오. 함께 먹고 서로 배우고 서로 필요로 하는 관계입니다.

WELCOME IS MORE THAN CHURCH

환대는 교회 행사 초대보다 먼저 식탁, 커피, 공원, 시장, 친구의 집과 좋아하는 식당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RECEIVE THEIR HOSPITALITY

친구가 초대하고 음식을 만들어주고 자기 문화를 소개할 때 기쁘게 받으십시오. 받는 것은 친구의 존엄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LET THEM CHOOSE THE TABLE

항상 우리가 장소와 음식을 정하지 말고 ‘당신이 좋아하는 곳에 데려가 줄래요?’라고 물으십시오.

FOOD IS MEMORY

음식은 가족, 명절, 고향과 연결된 기억입니다. ‘이 음식은 언제 먹어요? 누가 제일 잘 만들어요?’라고 물어보십시오.

THE TABLE IS FOR RELATIONSHIP, NOT CONTENT

친구의 집과 음식과 사진을 선교 콘텐츠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진이나 SNS 게시에는 허락이 필요합니다.

LANGUAGE HOSPITALITY

천천히 말하되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낮추지 마십시오. 쉬운 언어, 필요한 통역, 설명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CHURCH INVITATION WITH CLARITY

교회에 관심을 보이면 예배 시간과 진행, 헌금, 찬양, 기도 등을 미리 설명하고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알려주십시오.

NO SPIRITUAL AMBUSH

식사라고 초대 한 뒤 전도집회에 데려가는 식의 예고 없는 영적 상황을 만들지 마십시오.

NAME BEFORE NATIONALITY

교회에서 ‘베트남에서 온 친구’보다 ‘제 친구 민입니다’라고 소개하십시오.

DON'T MAKE THEM THE INTERNATIONAL REPRESENTATIVE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국제행사·선교주일 역할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마십시오.

RESPECT EXISTING CHURCH OR FAITH COMMUNITY

이미 건강한 교회에 속해 있다면 우리 교회로 옮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신앙 공동체를 방문할 때도 존중과 신앙적 경계를 함께 지키십시오.

MUTUAL CELEBRATION

생일, 명절, 종교적 절기 등 친구에게 중요한 날을 배우고 존중하되 의미를 모르면서 무조건 참여하지는 마십시오.

BE PRESENT IN HARD AND ORDINARY DAYS

위기 때뿐 아니라 평범한 날에도 연락하고 만나십시오.

RECIPROCITY

친구에게 배웠는가,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가, 친구가 나를 위해 기도하도록 허용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FREEDOM TO SAY NO

교회·성경공부·기도·식사 초대를 거절해도 우정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WELCOME THEIR PEOPLE

친구가 가족이나 동료를 데려오면 곧바로 전도 대상화하지 말고 친구의 친구로 환영하십시오.

FIELD PRACTICE • ONE SHARED TABLE

이번에는 친구에게 장소를 정하게 하고, 친구가 주는 것을 받고, 친구의 세계를 배우며, 함께 즐기는 상호적인 식탁을 만드십시오.

SMALL GROUP • 함께 돌아보기

1. 이번 주 My One Person 에 대해 새롭게 이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2.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가정이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3. 상호적인 우정과 친구의 자유를 위해 다음에 바꿀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4. 친구가 가진 은사와 관계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흔적은 무엇입니까?

WEEK 8 PRAYER

주님, 우리의 공간으로 초대하는 것만을 환대라 여기지 않고 친구의 식탁에도 앉고 그 언어와 문화에서 배우며 도움받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십시오. 도움을 신앙적 반응의 조건으로 만들지 않고 ‘아니요’라고 말해도 변하지 않는 우정을 주십시오. 아멘.

**SHARE THE TABLE. RECEIVE THEIR GIFTS. HONOR THEIR
WORLD. MAKE ROOM FOR MUTUAL FRIENDSHIP.**

WEEK 9 • WITNESS

증거하다 · 친구의 이주와 소속의 이야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고 자유롭게 나누다

KEY QUESTION

나는 My One Person 의 home, belonging, family, identity, suffering, guilt, hope, future 의 질문을 충분히 들은 뒤, 도움이나 관계적 의존을 이용하지 않고 My Story · God's Story · Jesus Story 를 분명하고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가?

WITNESS BEGINS WITH WHAT YOU HAVE HEARD

준비된 전도문보다 친구에게 실제로 들은 고향, 가족, 그리움, 일, 차별, 꿈, 두려움, 신앙과 소속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십시오.

DON'T FORCE A BRIDGE

‘집이 그림다’고 바로 ‘천국이 참 본향’으로, 외롭다고 ‘예수님만 있으면 안 외롭다’로 단순화하지 마십시오. 다리는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자라야 합니다.

ASK PERMISSION

‘제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좋아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같이 읽어봐도 될까요?’처럼 YES / NOT NOW / NO 의 자유를 주십시오.

HELP MUST NEVER BUY ACCESS

병원 동행, 행정 도움, 돈, 식사, 숙소, 취업 연결이 신앙적 의무를 만들지 않도록 분명히 하십시오.

MY STORY

BEFORE → JESUS MET ME → NOW 의 단순한 구조로 자신의 실제 신앙 이야기를 나누되 경험 경쟁이나 판매식 언어로 만들지 마십시오.

GOD'S STORY

CREATION → BROKENNESS → PROMISE → CHRIST → MISSION →
NEW CREATION 의 큰 이야기를 단순하고 분명하게 나누십시오.

GOD IS NOT A TRIBAL GOD

성경의 하나님은 한국인이나 서양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의 창조주입니다.

CHRISTIANITY IS NOT KOREAN CULTURE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식 예배와 관계 방식은 복음 자체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JESUS CROSSES BORDERS

사마리아 여인, 백부장, 수로보니게 여인 등 복음서에서 경계를 넘으시는 예수님을 보되 '이주민 선교 전략'으로 단순화하지 마십시오.

HOME · BELONGING · IDENTITY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형상과 존엄은 깊은 복음의 주제이지만 친구의 실제 고향과 가족의 상실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FAMILY & POSSIBLE OPPOSITION

다른 종교 배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가족 갈등이나 안전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언과 무모한 압박을 구분하십시오.

DIGNITY BEFORE PERFORMANCE

비자, 직업, 소득, 한국에서의 성공이 인간의 궁극적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SUFFERING & THE CROSS

차별과 외로움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쉽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고통의 자리로 들어오셨고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SIN IS NOT CULTURAL DIFFERENCE

음식, 복장, 인사, 가족문화, 예배스타일의 차이를 죄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모든 문화는 성경 앞에서 분별받습니다.

GRACE

계속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이주의 삶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는 선물입니다.

JESUS STORY

요 4 장, 눅 10 장, 마 8 장, 막 2 장, 눅 15 장, 눅 23-24 장 등을 읽고 ‘이 이야기에 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보여요?’라고 물으십시오.

IF THEY ALREADY FOLLOW JESUS

친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전도 대상으로 만들지 말고 형제자매와 동역자로 받으십시오.

CLARITY WITHOUT PRESSURE

예수님의 주되심, 십자가, 부활, 회개와 믿음을 분명히 나누되 생각할 시간, 질문할 자유, 거절할 자유를 주십시오.

DON'T COUNT A POLITE YES AS FAITH

문화적 예의의 ‘네’를 결심으로 해석하지 말고 친구가 자기 언어로 무엇을 믿는지 말하도록 기다리십시오.

FIELD PRACTICE • ONE STORY • ONE JESUS STORY

HOME, BELONGING, FAMILY, IDENTITY, SUFFERING, HOPE 중 친구가 실제로 품는 질문 하나를 선택하고 허락을 구해 짧은 복음서 본문을 함께 읽으십시오.

SMALL GROUP · 함께 돌아보기

1. 이번 주 My One Person 에 대해 새롭게 이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2.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가정이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3. 상호적인 우정과 친구의 자유를 위해 다음에 바꿀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4. 친구가 가진 은사와 관계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흔적은 무엇입니까?

WEEK 9 PRAYER

주님, 친구의 취약함과 우리가 베푼 도움을 복음 청취의 대가로 사용하지 않게 하십시오. 한국 문화와 복음을 구분하고, 모든 민족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은혜와 새 창조의 소망을 사랑과 자유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하게 하십시오. 아멘.

**HONOR THEIR STORY. SHARE YOUR STORY. OPEN GOD'S STORY.
SHOW THEM JESUS. LEAVE THE RESPONSE FREE.**

WEEK 10 • WALK

함께 걷다 • 친구가 자기 언어•가족•문화•디아스포라 관계
망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함께 걷다

KEY QUESTION

My One Person 이 예수님을 탐구하거나 따르기 시작할 때, 나는 친구를 한국 교회 문화에 동화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자기 언어와 가족, 문화와 관계망을 존중받으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자기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살아내도록 돕고 있는가?

WALK MEANS STAYING

복음에 관심을 보이거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뒤에도 우정과 동행은 계속됩니다. 교회, 가족, 기존 종교 공동체, 문화와 신앙을 분별하는 새로운 질문이 시작됩니다.

DON'T RUSH DISCIPLESHIP

직장, 언어, 가족, 체류, 경제의 부담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제자도 속도를 선택하십시오.

JESUS FIRST, CULTURE SECOND

제자도는 한국 교회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HEART LANGUAGE MATTERS

가능하면 성경, 기도, 찬양, 제자훈련을 친구가 가장 깊이 이해하는 언어로 접하도록 돕고 자기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십시오.

LEARN JESUS TOGETHER

READ → RETELL → DISCOVER → OBEY → SHARE 의 리듬으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계속 발견하십시오.

DON'T MAKE THEM DEPEND ON YOU

항상 ‘저에게 물어보세요’가 아니라 성경에서 함께 찾고 여러 건강한 그리스도인과 관계를 맺도록 돕습니다.

HEALTHY CHURCH CONNECTION

이미 건강한 교회가 있다면 존중하고, 없다면 JESUS-CENTERED · SCRIPTURE-ROOTED · WELCOMING · MUTUAL · SAFE · CONNECTED · PARTICIPATORY 공동체를 찾도록 돕습니다.

ATTENDANCE ≠ BELONGING

예배 참석이 실제 소속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알고, 식탁을 나누며, 은사를 사용하고, 의견을 듣고, 서로 필요로 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FAMILY STILL MATTERS

가족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적으로 만들지 말고 존중·사랑·경계·평화를 함께 배우십시오. 공개 시기와 방법에는 용기와 지혜가 함께 필요합니다.

DISCERN, DON'T ERASE

전통이 문화인지 종교행위인지, 예수님의 주되심과 충돌하는지 함께 분별하되 언어·음식·음악·가족 관습을 무조건 지우지 마십시오.

DISCIPLESHIP IN WORK & FINANCES

제자도는 월요일의 직장, 가족 송금, 재정 책임, 불공정한 상황 속 정직·정의·사랑의 문제까지 포함합니다.

FROM RECIPIENT TO CO-LABORER

친구의 기도, 환대, 리더십, 언어, 돌봄, 사업·직업 경험을 발견하고 ‘도움받는 이주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섬기는 동역자로 세우십시오.

THEIR PEOPLE

한국의 가족·친구·직장동료·같은 언어 공동체와 국경 너머 가족·친구·신앙 공동체를 친구가 이미 사랑하는 관계망으로 보십시오.

CALLING IS NOT ASSIGNED BY ETHNICITY

국적 때문에 ‘당신 민족 전도를 맡으세요’라고 역할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부르심은 민족성이 아니라 성령과 공동체 안에서 분별됩니다.

THEIR STORY IN THEIR LANGUAGE

친구가 자기 표현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나누도록 하십시오.

TRANSNATIONAL WITNESS

영상통화, 메시지, 온라인 성경읽기 등으로 증언이 국경을 넘을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전략이 아니라 친구의 사랑과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JESUS DISCOVERY GROUP

친구의 관계망에서 몇 사람이 집·기숙사·카페·공원·온라인에 모여 식사하고 삶을 나누며 짧은 예수님 이야기를 읽고 질문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DON'T TAKE OVER THE GROUP

우리가 모든 본문·질문·연락·기도를 통제하지 말고 친구들이 직접 말씀을 읽고 모임을 세우도록 도우십시오.

FROM DISCOVERY GROUP TO *ecclesia*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기도하고 돌보고, 다른 이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작은 예수 공동체가 자라면 FAMS에서는 이를 소문자 *ecclesia* 라고 부릅니다.

HEALTHY *ecclesia*

ecclesia 는 GOSPEL · FAMILY · MISSION 을 살아가며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되 예수님을 중심에 둡니다. 폐쇄적 민족클럽이나 한국 교회의 복사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CONNECT TO THE WIDER CHURCH

ecclesia 는 보편교회와 연결되어야 하며 기성교회와 상호적인 형제자매 관계를 맺습니다.

MOSAIC FELLOWSHIP

도시의 ecclesia·기성교회·언어별 교회·선교단체·그리스도인 리더들이 월 1 회 정도 예배·기도·식사·간증·도시의 필요를 나누며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섬기는 연합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NETWORK, NOT CONTROL.

CITY & NATIONS

디아스포라의 실제 관계가 도시와 열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지만, 중심은 숫자나 전략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WHAT IF THEY DO NOT FOLLOW JESUS OR MOVE AGAIN?

다른 신앙을 선택해도 친구로 남고, 다른 도시나 나라로 이동해도 메시지·영상통화·기도·온라인 말씀으로 우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FIELD PRACTICE · ONE NEXT STEP · ONE THEIR PERSON

친구의 현재 위치에 맞는 다음 한 걸음 하나를 정하고, ‘요즘 발견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누구와 가장 자연스럽게 나누고 싶어요?’라고 물어 그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 하십시오.

SMALL GROUP · 함께 돌아보기

1. 이번 주 My One Person 에 대해 새롭게 이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2.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가정이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3. 상호적인 우정과 친구의 자유를 위해 다음에 바꿀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4. 친구가 가진 은사와 관계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흔적은 무엇입니까?

WEEK 10 PRAYER

주님, 친구를 우리 문화와 교회 방식에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친구가 되게 하십시오. 자기 언어와 가족과 문화를 잃지 않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라며, 도움의 수혜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서게 하십시오. Their People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는 모임과 ecclesia 가 자라고, 보편교회와 Mosaic Fellowship 으로 연결되어 도시와 열방을 함께 섬기게 하십시오. 아멘.

**FOLLOW JESUS. HONOR THEIR LANGUAGE. STRENGTHEN
THEIR FAMILY. EMPOWER THEIR GIFTS. BLESS THEIR PEOPLE.
MAKE ROOM FOR ecclesia. CONNECT THE BODY.**